한때 연인이기도 했던 포크 가수 존 바에즈가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바에즈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벨문학상 수상은 밥 딜런의 불멸을 알려주는 또 한 걸음"이라며 "저항적이고, 세상을 등진 듯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예술가·작곡가는 노벨문학상에 딱 맞다"고 말했다. 1966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밥 딜런(왼쪽)과 존 바에즈. /연합뉴스

'대답은 바람 속에…' 밥 딜런 음반·도서 열풍

노벨문학상 수상에 '노킹 온 헤븐스 도어' 등 다시 인기

자서전 '바람만이 아는 대답' 예술분야 베스트셀러 1위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흰 비둘기는 얼마나 많은 바다를 건너야/ 모래 밭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은 포탄이 날아가야/ 그것들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을까…" (밥 딜런의 '바람만이 아는 대답(Blown' in the Wind)'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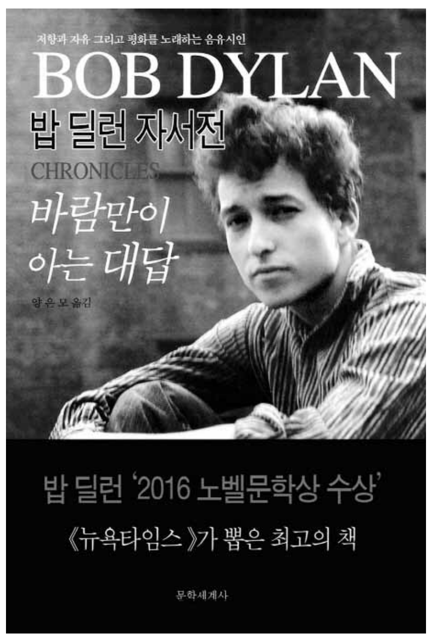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미국의 밥 딜런(75)은 가수이자 음유시인, 화가로 장르의 경계의 장벽을 허문 대중예술가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 한림원이 지난 13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로 "그가 노래의 형태로 시를 쓰는 것은 고대 그리스 음유시인의 전통과 다르지 않다"면서 "밥 딜런은 귀를 위한 시를 썼다. 그의 작품을 시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대표 노래 '바람만이 아는 대답(Blown' in the Wind)'는 한 편의 시를 능가하는 아름다운 노랫말로 유명하다. 단순히 서정적인 노랫말에 그치지 않고 모든 폭력에 반대하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 타임스 데이 아 어 체인징(The Times They Are a-Changin)'등 반전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는 1960년대 미국 반전 운동의 상징곡처럼 불렸다.

스웨덴 한림원이 그의 가사를 '귀를 위한 시'로 명명한 것은 '시 같은 노래'로 많은 이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번 한림원의 선택은 기존의 정통 문학의 틀을 벗어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지난해 '목소리 소설'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저널리스트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를 선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평이다.

1941년 미국에서 태어난 밥 딜런은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그룹 'Bob Dylan & Grateful Dead' 멤버로 활동했다. 딜런은 영국 시인 '딜런 토머스'에서 '딜런'이라는 이름을 따 예명으로 할 만큼 노랫말의 시적 형상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노래로는 '노킹 온 헤븐스 도어(Knockin' On Heaven's Door)'다. "…두드려요. 천국의 문을, 천국의 문을 두드려요/ 엄마, 내 총들을 땅에 내려주세요/난 더이상 그 총들을 쓸 수 없어요…" 이 노래는 그간 여러 명의 가수에 의해 리메이크되기도 했다.

밥 딜런이 1962년 발표한 '하드레인스 고나 폴(A hard rains' gonna fall)' 또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노래다. "무엇을 보았니 내 아들아/…죽은 말 곁에 서 있는 아이를 보았소/몸이 불타는 여자아이를 보았소/…험한 비가 내리려 해요…" 묵시론적인 이 노래는 쿠바 핵위기와 맞물려 전쟁으로 인한 삶의 초토화를 경고했다. '하드레인'은 핵미사일, 낙진을 뜻하는 것으로 반핵과 반전에 초점을 맞춘 명곡으로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

글쓰기에 남다른 재능을 지녔던 그는 자서전 '바람만이 아는 대답'으로 2004년 뉴욕타임스가 뽑은 올해 최고의 책에 선정됐다.

"나는 먼 길을 왔고 가야 할 먼 길을 출발했다. 그런데 지금 운명이 그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운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자서전 '바람만이 아는 대답'에서 딜런이 한 말이다. 책에는 전설이 되어버린 한 인간의 파란만장한 삶과 솔직한 고백이 큰 울림으로 드리워져 있다. 이처럼 그의 음악과 시적인 노래, 글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평화를 위한 갈망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상징하고 있다.

한편 딜런의 노벨상 선전을 계기로 도서와 음반에 대한 국내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온라인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자서전 '바람만이 아는 대답'(문학세계사)은 수상자가 발표된 13일 오후 8시부터 15일까지의 판매량이 급증했다. 수상 발표 전에는 1개월에 단 1권 팔렸지만 이후 200배 이상 늘며 예술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터넷교보문고에서도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 수상 발표 이후부터 16일 새벽 3시까지 300권 판매됐다. 이 같은 양상은 2005년 국내 출간 이후 10여 년 동안 200권 남짓에 불과하던 판매량을 단 사흘 만에 돌파한 것이다. 책을 발간한 문학세계사는 수상 발표 이튿날 14일 아침 추가로 1만부 인쇄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음반 또한 직전 동기간 대비 2만1000%가 늘어난 211장을 기록했다. 밥 딜런의 오리지널 음원 44곡을 수록한 'The Ultimate Bob Dylan Collection : The Real… Bob Dylan'과 롤링 스톤 역대 최고의 명반 97위를 기록한 'The Freewheelin' Bob Dylan'은 POP 음반 베스트셀러 1위와 2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밥 딜런의 자서전과 음반 판매량이 는 것은 그를 기억하는 40~50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서전 '바람만이 아는 대답' 구매자는 40대가 3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22.7%, 50대 20.8% 순이다. 음반 구매자는 50대가 31.3%로, 40대 25.6, 30대 16,9%로 분석됐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을밤 전통한옥 달빛음악회

21일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

'전통한옥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다.'

광주시 서구가 주최하는 '2016 가을밤 전통한옥 달빛음악회'가 오는 21일 오후 6시30분~8시 30분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에서 열린다.

최유랑씨가 사회를 맡은 이번 음악회는 '소리노리'의 신명나는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제샛별(전남대학교 소리문화연구소)씨의 판소리 '춘향가', 월드뮤직 페스티발 오프밴드로 참여했던 '재즈피에스타'의 'Autumn leaves'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팝페라 그룹 '커뮨'이 '축배'의 노래'를 들려주며, 주권기의 통기타, 강명진의 전자바이올린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 공연 후에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도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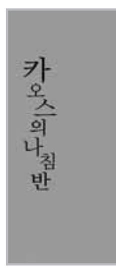
오후 3시부터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영상체험관에서 전통놀이 한마당이 열리며 서창 농협과 연계해 우수 농산물 부스도 운영한다.

참가자 사전 예약 필수. 문의 062-373-136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전통 한옥음악회 공연.

이돈배 시인 신작 시집 '카오스의 나침반' 펴내



평론가이자 송원대 명예교수인 이돈배 시인이 신작 시집 '카오스의 나침반'(천년의 시작)을 펴냈다.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시간'을 매개로 하는 사유 방식을 선보인다. 이는 시간의 흐름 안에 놓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지닌 삶의 형식을 투시하는 의도로 읽힌다. 모두 60여 편이 수록된 시집은 객관적이며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아닌, 개개인의 삶에서 경험되고 인지되는 주관적인 시간에 초점을 맞춘다.

이 같은 의도는 '카오스의 나침반'이라는 표제와 맞닿는 부분으로, 시인은 새롭게 배열되는 '시적 시간'을 통해 풍경과 그 너머의 시간을 응시한다. 이 과정에서 시인의 개성적인 시각은 사물과 풍경에 내재하는 파동을 새로운 이미지로 구축하고 배열한다.

평론가인 유성호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이돈배의 신작 시집은 우리로 하여금 시원(始原)의 스케일과 존재론적 근원 지향의 서정을 경험케 함으로써, 삶의 성찰과 궁극적 긍정에 이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한다.

한편 이돈배 시인은 1994년 공저시집 '이상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황새의 눈', '궁수가 쏘아내린 소금 화살', 평론집 '자연의 음성과 사물의 감각화' 등을 펴냈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중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